

2010
다(多)머물림
도시문화축제
100배 즐기기

2010 다(多)어울림 도서문화축제 100배 즐기기

발행일 2010년 10월

발행인 임무성, 김규순

편집인 남윤장, 김수정

발행처 은평구립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194쪽)

1. 행사개요

세계의 문화를 몸으로 느끼다! 2010 다(多)어울림 도서관문화 축제!

은평구립도서관은 2004년부터 “책으로 품히는 아이들의 미래!”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이들은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책을 통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매년 어린이도서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은평구립도서관과 증산정보도서관이 공동주관으로 제15회 은평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다문화 함께하는 행복! 이라는 주제로 2010 다(多)어울림 어린이도서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0 다(多)어울림 도서관문화 축제!’는 세계 각국의 도서와 인형, 가면, 화패를 보고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 기간: 2010년 10월 13일 ~ 17일(5일간)
- 장소: 은평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실
- 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주최: 은평구청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 주관: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 상림마을작은도서관
- 교육: 다문화박물관
- 후원: 중국문화원, 느티나무도서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누리미디어, 엔티스코리아

2. 행사내용

■ 다문화전시관

- 세계의 도서 코너: 다양한 나라의 도서 전시
- 세계의 화폐 코너: 유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태국, 스위스의 화폐
- 세계의 전통 의상 전시
 - 남자의상: 중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 여자의상: 러시아, 콜롬비아, 네덜란드, 독일, 우즈베키스탄
- 세계의 인형 전시
 - 러시아, 태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아프리카, 콜롬비아, 체코 등
- 세계의 가면 전시: 베니스가면, 중국 변검 가면, 아프리카 가면 등
- 세계의 유명 건축물 전시: 각국의 유명 건축물 전시, 자유의 여신상, 방마용, 진실의 입, 무팡카엔 등

■ 다문화체험관

- 이젠 나도 패션니스트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며 체험 국가의 기후적인 특성 체험하는 시간
- 빙글빙글~ 아프리카 춤 체험
아프리카 선생님과 함께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전통춤 배워보는 시간
- 유럽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유럽인 다문화 선생님과 함께 그 나라의 인사말과 예절, 문화적 특성을 배워보는 시간
- 세상의 이런 맛이?
일본인 선생님과 함께 일본 전통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 시간
- 전통 놀이 체험: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직접 즐겨보는 시간

3. 이렇게 즐겨라! 두 배 더 즐겁다!!

POINT 1. 세계의 조형물, 의상, 화폐를 관람해요!



세계 각 나라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멋진 조형물과 의상, 화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용품들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생활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POINT 2. 다채로운 다문화 체험관 에 참여해 보세요!



각 나라의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이제 나도 패셔니스타!', '빙글빙글~ 아프리카 춤 체험', '세상의 이런 맛이!',
'유럽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POINT 3. 세계의 문화를 책으로 만나 봅시다!

기획전시실 입구에는 세계 각국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똑같은 그림책도 보고,
다른 나라 동화책도 볼 수 있어요.

참! 다문화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를 도와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POINT 4. 세계 민속놀이 한마당!

은평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서 세계 각국의 민속놀이를 즐겨 보세요.

우리나라의 투호, 일본의 타루마오보시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겨 보세요!

4. 체험프로그램 일정표

13일 (수)	이젠 나도 패셔니스타!	빙글빙글~아프리카춤 체험	세상에 이런 맛이?
	10:30, 11:30, 14:30	10:30, 13:30, 15:30	10:30, 11:30
14일 (목)	유럽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젠 나도 패셔니스타!	
	10:30, 13:30, 15:30	11:30, 14:30, 16:30	
15일 (금)	유럽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빙글빙글~아프리카춤 체험	
	10:30, 13:30, 15:30	11:30, 14:30, 16:30	
16일 (토)	유럽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14:30, 15:30, 16:30		
17일 (일)	이젠 나도 패셔니스타!	세상에 이런 맛이?	
	14:30, 15:30, 16:30	11:30, 13:30	



5. 세계로 떠나는 동화 여행

세계의 유명한 동화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와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았더라도 동화의 국가와 그 나라의 문화를 느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다시 읽어본다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 재미 - 다양한 재미와 웃음을 통해 끊임없는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 함양!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염소 | 독일 | 그림형제



권선징악이 뚜렷한 이야기, 모험담과 성장담, 도덕과 철학이 묻어나는 이야기 등을 읽음으로써, 창의력과 배려심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는 엄마 염소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일곱 마리 아기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이웃마을에 가게 되었어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아기 염소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 | 이탈리아 | 카를로 콜로디



나무인형 피노키오가 집을 떠나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사회의 이슈들을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고 사회 제도, 신과 악, 허위에 가득 찬 도덕관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카를로 콜로디는 나무인형이지만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피노키오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부딪치는 사회의 여러 제도를 이탈리아인 특유의 유머와 재치, 그리고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려내고 있습니다.

■ 사랑 -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 사랑!

*눈의 여왕 | 덴마크 | 안데르센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별때 가운데 여왕벌이 있듯이 눈 가운데도 '눈의 여왕'이 있대요. 가장 크고 하얀 눈송이가 바로 눈의 여왕이랍니다. 눈의 여왕이 카이라는 아이를 데려가서 카이는 눈의 여왕의 성에서 싸늘하게 얼어붙은 채 지냈어요. 그때 카이의 가장 친한 친구 게르다가 카이를 찾아 길을 나섰지요. 과연 게르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게르다가 어떻게 눈의 여왕으로부터 카이를 구해 낼까요?

눈의 여왕을 순백색의 차갑고 냉철하면서도 손에 잡으면 녹아내릴 것 같은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캐릭터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파격적인 구도와 과감한 구성을 통해, 작에 빠진 카이의 위기와 카이를 찾아 헤매는 게르다의 고난을 아슬아슬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거인 | 아일랜드 | 오스카 와일드



도깨비 친구를 만나러간 거인이 7년 만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거인은 아이들을 내쫓고 정원 둘레에 담을 쌓고 들어오지 못하게 글까지 써 붙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거인의 정원은 다시는 봄이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봄도 가을도 문 앞에 써 붙인 글을 보고 거인의 정원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과는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 거인의 정원에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감수륙 사회화되는 아이들에게 있어 이 「욕심쟁이 거인」은 배우는 살아야말로 새로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배우게 해줍니다.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만족감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적당히 공유하고 나누면 줄곧 행복한 생각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커다란 진리를 보여 줍니다. 「욕심쟁이 거인」을 통해 세상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요?

■ 지혜 - 지혜를 길러 주는 이야기가 가득!

* 잭과 콩나무 | 영국 | 영국민화



영국의 대표적인 옛이야기로, 심하게 어른이 되어 가는 남자 아이의 모험 이야기! 쫓소를 신비한 콩과 바꾼 잭이 밤새 하늘까지 자란 콩나무 덩굴에서 쫓은 소년의 모험담을 그린 영국의 대표적인 옛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콩을 타고 거인의 집에 들어간 잭이 거인의 보물인 금화, 황금 알을 낳는 닭, 노래하는 하프를 훔쳐 달아나는 이야기로 지혜와 용기로 거인의 보물을 가지게 된 잭의 도전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 피리 부는 사나이 | 독일 | 독일민화



한 사나이가 마을 사람들의 약속대로 피리를 불며 쥐들을 모두 없애 주지만 징작 사람들이 그대가로 돈을 주지 않자 그들의 소중한 보물인 마을 아이들을 빼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 하멜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전해져 오는 유명한 민화이며 약속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 신비 - 재미있는 환상과 모험으로 신비감이 가득!

* 오즈의 마법사 | 미국 | L. 프랭크 바움



환상의 나라 오즈에서 펼쳐지는 도로시와 친구들의 신비한 모험 이야기가 상상력을 자극하며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캔자스 농장에 사는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신비한 나라 '오즈'에 가게 됩니다. 착한 마녀의 도움으로 캔자스로 돌아가기 위해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나선 도로시는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된 그들은 저미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즈로 가는 험난한 여행을 시작하는데...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와 함께하는 도르시의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며 환상과 상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또한 단순히 환상적인 동화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사랑과 용기와 지혜라는 덕목에 대한 깨달음을 안겨 줍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 영국 | 루이스 캐럴



엘리스라는 소녀가 꿈속에서 토끼 굴에 떨어지면서 겪는 온갖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그린 동화로 재미있는 설정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그리고 기발한 스토리는 어른들에게도 여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몸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며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 속에 말려드는 주인공 엘리스 책 속엔 조끼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흰 토끼, 담뱃대를 입에 물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애벌레, 언제나 큰 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하트 여왕 등 기발하고 개성 넘치는 수많은 인물들이 환상의 세계를 선보입니다.



2010 다+어울림 도서관문화 축제!
100만 줄기71

6. 또 하나의 문화사절단, 세계의 화폐



여러분의 주머니 속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담긴 얼굴들이 구겨지고 볼품없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뽀뽀하고 반질반질한 모습인가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얼굴,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 인물이나 독특한 자연풍경, 상징물 등을
화폐에 그려 넣어 그 나라만의 문화와 역사, 풍습을 나타냅니다.

여러 나라의 화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인물' 이에요, 우리나라 화폐에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담겨 있고 미국의 달러에는 역대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모든 위안 화폐에 마오쩌둥의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
어요, 프랑스의 50프랑짜리 동전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동화 '어린왕자'가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새겨지
기도 했다는군요.

이렇게 **화폐 속에 인물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전통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물은 저마다 뚜렷
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위조와 변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부르는 화폐는 옛날에 물물 교환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자체의 독창적인 문양과 아름다움으로 세계인들에게 자국의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사절단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세계적인 위상을 뽐내기 위해, 혹은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인물의 수염하나, 나뭇잎 방향 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여 만들어지고 있다 하니, 앞으로 화폐가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지 않도록 지갑 속에 꼭꼭 간직해 주
세요! 화폐는 곧 우리의 얼굴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세계 화폐 속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인물

- 대한민국 : 우리나라 화폐에는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퇴계이황,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위대한 인물들이 새겨져 있어요.
- 미국의 화폐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새겨져 있어요.
- 유럽의 화폐에는 건축가, 음악가, 학자 등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건축가를 새겨 넣은 스위스, 여배우 모습을 넣은 덴마크, 물리학자를 담은 노르웨이

동물

-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새를 넣은 재미있는 화폐도 있어요.
- 오랑우탄을 넣은 인도네시아
 - 코끼리와 물소를 넣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 바다거북과 앵무새를 담은 브라질

식물

- 그 나라만의 특산물이나 상징 꽃을 화폐에 넣기도 해요.
- 꽃을 넣은 영국
 - 코코넛을 담은 몰디브 화폐

기타

-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나 학교를 그려 넣은 화폐도 있어요.
- 학교를 그려 넣은 싱가포르 화폐
 - 과학 공부를 하는 어린이 모습을 담은 타이완 화폐

화폐! 더 자세히 살펴보기!

■ 미국



미국은 100달러, 10달러만 빼놓고 모든 화폐의 인물을 역대 대통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1달러 인물로 도안한 것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국민이 늘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거래요. 또 2달러는 행운을 지켜준다는 속설로 유통용 보다는 수집용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미국은 위폐를 방지하기 위해 화폐 인물의 크기를 확대한 것 이외에는 1928년 이후부터 똑같은 화폐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제 통화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통화단위	달러
환율	1달러 = 1,123원
화폐종류	지폐 100, 50, 20, 10, 5, 2, 1 달러 동전 50, 25, 10, 5, 1 센트
수도	워싱턴
국가원수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2010년 10월 현재

■ 유로화



우리나라 돈은 원, 미국은 달러, 영국은 파운드입니다. 돈의 쓰임새는 같아도 화폐이름은 모두 다르죠. 하지만 2002년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화폐를 통일시켜 유로화를 쓰고 있어요.

■ 유로란?

EMU(European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동맹) 유럽 내 12개 나라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현찰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단일통화를 말합니다.

■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는?

유로가 사용되는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와 핀란드입니다. 영국·덴마크·스웨덴 3개국은 불참했습니다.

■ 유로의 기원은?

유럽, Europe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EU에서 오래 의견을 나누고 깊이 생각한 끝에 1995년 'euro'로 결정되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ECU'를 미래 화폐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과거의 프랑스 돈을 떠올린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uro의 약자는?

유로의 약자는EUR입니다.

■유로 사용의 장점은?

16개국에서 일제히 같은 화폐인 유로를 쓰므로 돈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16개국의 물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돈을 바꿀 때 부과되는 환전 수수료가 없습니다.

■1유로는 얼마인가요?

현재 1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1,547원(2010년 10월 4일 현재)입니다.

■ 스위스



스위스의 화폐는 프랑과 상투이예요. 1995년 이후 발행된 화폐는 화려한 색상에 스위스 문화, 예술에 공이 큰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스위스 프랑은 첨단 위조 방지 장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통화단위	스위스 프랑
환율	1프랑 = 1,149원
화폐종류	지폐 1000, 500, 200, 100, 50, 20, 10 프랑 동전 5, 2, 1, 1/2프랑 20, 10, 5, 1싱팀
수도	베른
국가원수	한스 루돌프 메르츠 (Hans-Rudolf Merz)

2010년 10월 현재

■ 인도



인도의 모든 화폐의 도안에는 간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도 화폐는 한 화폐에 15개의 언어로 화폐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인도는 1,660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공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했고, 그 인정된 공용어가 15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화폐는 루피라고 합니다. 인도 1루피는 한국 돈으로 25원 정도입니다.

통화단위	루피
환율	1루피 = 25원
화폐종류	지폐 1000, 500, 200, 100, 50, 20, 10 루피 동전 5, 2, 1루피 50, 25 10파이스
수도	뉴델리
국가원수	프라티바 파틸 (Pratibha Devisingh Patil)

2010년 10월 현재

7. 사람들은 왜 가면을 썼을까요?

가면의 기능과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술가면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에서 가면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악귀를 퇴사하는 기능을 가면이 갖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가면은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성가면으로, 사원이나 사당에 두고 숭배하고 제사 지내며, 가면을 쓴 신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셋째, 전쟁가면입니다. 전쟁가면은 적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무섭고 이상하게 생긴 얼굴을 합니다. 갑옷이나 투구에 무서운 가면을 부착함으로써, 적에게 공포를 주게 됩니다. 일본 무사들은 가면 헬멧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장례가면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쓴 것이 대표적입니다. 악령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거나, 영혼이 방황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위장가면. 짐승의 소리를 흉내내거나 동물에게 접근하기 위해 쓰는 가면으로, 지금도 남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들은 위장가면을 쓰고 수렵생활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용과 연극 등에 사용하는 예능가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혼가면, 토렘가면, 의료가면, 기우가면 등 다양한 가면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가면은 지구촌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화적 상징물의 하나입니다. 농사의 풍년이나 질병의 쾌유 등을 기원하거나 토렘과 신앙, 사냥이나 각종 의식용, 또는 극예술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면을 활용하였습니다.



가면 속에 살아있는 세계의 이야기

▣ 베네치아의 가면 카니발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면 축제가 일 년에 한 차례씩 열립니다. 베네치아 가면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200년대 베네치아 총독이 베인을 쓴 여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가면은 선거나 결혼식, 연극을 보러갈 때 남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등 다양하게 쓰였어요. 베네치아에서 가면이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베네치아가 워낙 작은 도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다들 가면을 찾을 수밖에요. 그러나 가면 때문에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나자 법으로 가면 쓰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정부는 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가면을 쓰게 허락했지요. 원래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는 가톨릭 국가에서의 카니발과 같은 시기에 열렸습니다. 이 축제 동안에는 보통 금지했던 것들이 허락되고 신분이나 성, 빈부, 종교 같은 모든 종류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평민은 화려한 가면에 화려한 옷을 입고 평소 낮은 신분 때문에 겪는 설움을 달랬습니다. 귀족과 같은 특권을 누리며 긴장감을 풀고 해방감을 마음껏 누렸어요. 자신을 숨긴 채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 가면 축제와 잘 들어맞은 셈입니다. 귀족도 이 축제를 통해 평민에게 자유를 증으로써 지배구조를 더욱 끈끈히 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민들은 축제가 끝나면 귀족들을 더욱 충성스럽게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는 그 뒤 잠시 주춤했다가 1980년에 되살아나 지금의 베네치아를 세계의 유명한 축제 도시로 만들어 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술 가면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식들 중에는 그 나라의 고유한 형태의 가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처럼 가면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대중화된 곳은 흔치 않습니다.

B.C 5000여 년 전에 제작되어진 남부 알제리아(Algeria) 타실라(Tassili) 지방의 암각화를 보면 아프리카의 주술사와 무희들이 가면을 쓰고, 의식을 행하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의 이러한 역사처럼 가면들이 사용되어지는 기능적 역할 또한 복잡하고 매우 다채로운 형식

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면의 기능은 정치적 권위를 확인시키는 도구로, 성인식을 마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상징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조상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는 중계자의 역할로, 부족사회의 가치에 대한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도구로 또, 단순히 행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가면극, 변검!



중국의 전통극 하면 주로 경극과 천극을 떠올릴 것입니다. 경극은 북경지역에서, 천극은 사천지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검'은 바로 사천 지방의 천극을 대표하는 전통극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에 쓴 가면이 바뀌는 묘기로 손이나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 찰라 얼굴의 가면이 다른 가면으로 바뀌어 지는 전통극입니다.

변검은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천성 출신사람에게만 전승됐고, 그 가운데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친 극히 일부분의 남성들에게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8. 세계의 인형, 그 나라의 분위기가 보여요!



세계 각국에는 각각의 풍습을 나타낸 많은 인형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 민족 특유의 얼굴 모습, 그리고 특산 재료로 만들었으므로 각국의 생활풍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에스파냐의 플라멩고를 나타낸 무용인형, 러시아의 티포트를 모은(俄濶)하는 키버 인형, 체코의 유리인형, 스위스의 북각인형 등으로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종이 인형은 오밀조밀한 중국의 민족성을 대표하고, 포르투갈의 플라멩고 무용 인형은 바다로 향하는 포르투갈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인형을 따로 소장하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인형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뉘른베르크 박물관의 '크리스마스 인형', 스위스 비레스카슈트르츠 컬렉션의 '우든돌 인형', 런던 베스넨그린 미술관의 '인형의 집' 등은 인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둘러볼 만합니다. 인간은 인형에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인형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 러시아 인형(마트로슈카)



마트로슈카는 러시아의 나무로 만든 인형입니다. 마트로슈카는 러시아어 여자 이름 마트로나(Матрена)의 애칭형입니다. 몸체 속에는 조금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으며, 빛 회를 반복하는 상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6층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인형은 여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대통령 등 유명인이 그려진 변형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9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 나온 기념품에서 착안하였다고 합니다.

■ 체코 인형(마리오네프)



체코 곳곳을 다니다 보면, 어린 시절 한 번쯤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만한 인형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오네프(string puppet)라고 불리는 이 인형을 그저 아이들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 인형극은 전통도 깊고 인형 조각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 일본 인형(다루마)



일본에서는 무언가 간접히 바라는 소원을 빌 때, 다루마 인형을 사용합니다. 남인도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건너간 선종의 시조 달마 대사의 좌선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다루마 인형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원을 빌 때마다 눈동자가 생기나죠. 일단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오른쪽(다루마의 왼쪽) 눈에 눈동자를 찍으며 목표 달성 기간을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에 목표나 소원을 이루었을 경우에 다루마의 오른쪽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고 다루마 인형을 불에 태우면서 목표달성을 자축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목표달성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다루마의 오른쪽 눈에 눈동자를 찍으며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두 번의 시도에도 목표달성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발로 강하게 밟아서 깨뜨립니다.

9. 세계의 조형물

왜 건축가들은 커다란 건물을 설계하고, 사람들은 그 건물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할까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 건물에 살거나 그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그 건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건축물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사원은 신앙을 위한 장소로, 성과 요새는 영주가 자신의 땅을 감시하기 위해, 웅장한 무덤은 존경하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기념탑은 나라의 자부심을 표현하며, 오늘날의 거대한 현대적 사무실은 회사나 도시의 부와 권력 그리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기도 합니다.

■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아홉 살이던 어린 나이에 파라오 자리에 올랐지만, 일어덜 살에 전쟁터에 나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금으로 만든 투탕카멘 황금 가면은 오늘날 알려진 가면 가운데에서 가장 정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존해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왕이나 왕비, 왕족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가 영원히 편안하게 지내도록 살아 있을 때 쓰던 물건과 하인들이 피라미드에 함께 묻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가면 미라는 혼령이 죽은 이의 몸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죽은 이와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 덮는 것으로 썩지 않을 시체 미라를 저장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귀족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던 이집트의 평민들은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미라 가면을 주로 이용했지만, 왕족이나 귀족은 아주 멋있고 값비싼 가면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투방카멘의 황금 가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진실의 입



이탈리아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코스메틴 산타마리아델라교회에 가면 입구의 벽면에 진실의 입 조각상이 있습니다. 얼굴 앞면을 둥글게 새긴 대리석 가면으로, 기원전 4세기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강의 신 홈르비오의 얼굴을 조각한 것인데, 이 조각상이 진실과 거짓을 심판하는 '진실의 입'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로마시대에는 가축시장의 하수도 뚜껑으로 사용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중세 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사람을 심문할 때 심문을 받는 사람의 손을 입 안에 넣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이 잘릴 것을 서약하게 한 데서 '진실의 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심문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손을 자르도록 미리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 자유의 여신상



미국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 강 입구의 리버티 섬(Liberty Island)에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우호증진을 위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지만 통상 자유의 여신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1875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1884년에 완성되었고, 잠시 프랑스 파리에 서 있다가 1885년 배를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어 1886년에 현재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銅)으로 만든 여신상의 무게는 225t, 햇불까지의 높이는 약 46m, 받침대 높이는 약 47.5m입니다. 지면에서 햇불까지 높이는 93.5m에 이르고, 집게손가락 하나가 2.44m라고 하니 실로 거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지요. 받침대 위에 선 여신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7개 대륙을 상징하는 풀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에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햇불을 들고,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10. 민속의상으로 그 문화를 배워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 속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입은 옷, 머리 스타일, 화장 등을 단서로 그것을 알아내지요. 옷에는 그것을 입은 사람의 종교, 혈통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견해까지도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상은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는 지역의 기후, 생산품(양모 혹은 비단), 예절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은 치파오입니다. 활쓰기나 말 타기에 편리하도록 몸에 꼭 끼는 형태입니다. 중국의 청나라 때부터 남녀 공용으로 널리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어두운 색상의 옷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옷을 입습니다. 특히 붉은색은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으로 오늘날에도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영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에 의해 건설된 나라여서인지 전통의상도 유럽의 의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부 개척시대를 상징하는 카우보이 복장을 미국의 창신이 잘 드러나 있는 남성의 전통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죽점퍼와 챙이 넓고 독특한 '텐갈론 햇(Tengallon hat)'은 카우보이 복장을 대표하며 동시에 미국의 건국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복을 그대로 입습니다. 남자는 양치기가 입었던 옷으로 길이가 길고 누빔 옷인 초판(chopan)을 입으며 요즘은 다양한 장식품으로 치장된 초판을 입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튜닉(tunic : 통이 넓은 옷)과 바지에 화려한 길옷을 입기도 하는데 근래 여성들은 대부분 유럽식 옷을 즐겨 입거나 전통 실크드레스를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상은 매우 상징적으로 사람들과 땅, 과거, 이슬람과의 연대를 나타냅니다. 주로 헝겁고 흘러내리는 듯한 의상은 사막 국가에서 실생활에 유용할 뿐더러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전신을 감싸는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는 모직이나 면화로 짠 발목 길이의 치마(타브)와 구트라(끈으로 지탱하는 커다란 크기의 면직물)를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드물지만 추운 날에는 사우디 남자들은 낙타털로 만든 외투(비슈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옷에 전통적인 디자인과 동전, 금속조각, 칠채 바늘과 여러 가지를 꿰매 붙여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 불행히도 사우디 여자들은 외출 시 자신

들의 정숙함을 보호하기 위해 베일(아바야)을 쓰기 때문에 화려한 여성들의 옷은 가족들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체온유지를 위한 두박한 옷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러시아의 전통의상은 붉은색과 흰색이 많이 사용된 수가 놓아진 화려한 색상의 셔츠와 블라우스입니다. 여기에 수가 놓여진 모자와 나무껍질로부터 얻는 강하고 질긴 섬유를 이용하여 특별하게 짜 만든 신발을 신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입는 블라우스는 '투바슈카'라고 하며, 러시아 여자 민속 옷은 '시라판'이라고 합니다. 시라판은 몸에 꼭 맞고 소매가 없는 볼퐁부와 길이가 긴 스커트입니다. 러시아엔 하면 떠오르는 털모자 '샤프카'는 러시아인들의 겨울 필수품이며, 개별로 만든 것으로부터 은빛 어우털에 이르기까지 그 재료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전통의상에는 유난히 꽃무늬가 많이 들어갑니다. 17C 미술품을 통해서도 종종 드러나는 네덜란드의 전통의상은 하이디 같은 나막신에 귀여운 고깔모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의상을 하나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네덜란드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의상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현재에도 제이란드(Zeeland)와 프리슬란드(Friesland), 북동 플뤼위(Veluwe), 한때 어촌이었던 에이셀(IJsselmeer) 호수 근처의 폴렌담(Volendam)과 마르켄(Marken)에서는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10 다누리물림 도서관화 축제!
100원 즐기기

※ 다문화에 대한 나의생각

오늘 전시회가 어땠나요?

전시회에 대한 소감과 다문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사진을 넣어주세요.

이 름:

학 교:

연락처:

